

제과 명장(名匠), 이렇게 탄생한다

자격 요건 · 서류 작성 등 준비과정 분석

매년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명장제도에 대해 서류신청 절차와 자격요건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취재 / 임희정 lim@mbakery.co.kr>

제과 명장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과 명장'에 선정될 경우 명장 증서와 휘장, 1,000만원의 일시 장려금 등이 수여된다는 점 이외에도 기술 계통에서는 현존하는 최고 권위의 영예라는 면에서 많은 기술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명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정된다. 이 때문에 구비 서류를 갖추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장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인 최고의 칭호인 만큼 엄격한 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기술인은 처음부터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부가 공시한 조건에 부합되기를 쉽지 않다.

특히 베이커리 업계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은 명장 신청 절차에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공정 개선 및 품질 향상' 실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데 불리한 요소가 있다. 또 명장은 167개 산업 부문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심사하지만 한해 30여명 정도만 선정된다. 베이커리 업계는 2000년에 박찬희씨, 2001년에 임현양씨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지만 '제과' 부문에 매년 1명씩 배출되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 '명장 제도' 시행 이후 베이커리 업계가 속한 서비스업 전체에서 배출된 명장은 5명에 불과해 명장으로 선정되는 일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산업부

문에서 최소 20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기술인 최고의 칭호인 '제과명장'이 되기까지의 서류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명장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

명장제도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많은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명장에 선정된 자는 일시장려금 및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필기가 제외되는 등의 특전을 받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공단 홈페이지(www.kmanet.or.kr)와 일간지 신문에 게재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명장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식 배부 및 접수 기간은 매년 5월경이다. 명장에 선정이 되고자 하는 이는 별도의 추천 과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표4 참조>.

명장 선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후보자는 제한 없이 추천 받을 수 있다. 추천 기관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당해 연도 추천기간 동안 부문별 추천서 및 해당 첨부서류 각 1부씩을 제출해 등록절차를 마친다<표5 참조>. 명장으로 추천된 자는 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 매년 발표예정일(작년의 경우 9월이었음)에 공고된다.

명장에 선정된 자에게는 명장증서와 휘장이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1,000만원과 매년 기능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각종 기능경기 관련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선정 분야는 기계, 금속, 전자, 통신, 조선 등 각 산업 24개 부문 167개의 직종이 현재 포함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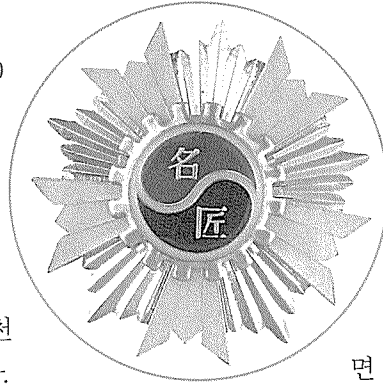
◀ (사)대한민국 명장회는 2001년 제8회 대한민국 명장전을 개최하는 등 명장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매년 후보자 등록 절차 과정을 거쳐 명장에 선정된다.

이와 같은 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명장에 선정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은 접수 개시일 현재 산업현장의 동일분야에서 20년 이상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 명장 직종 및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50세 이상인 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아니어도 자동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명장 이외에도 우수 지도자와 기능장려 우수 사업체를 선정해 동일한 기간 동안 후보자 추천 및 서류 접수를 받아 명장과 함께 발표한다.



서류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결정되는 명장 제도에 있어서 제반 서류 준비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추천 기관의 직인이 누락되거나 구비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1차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추천 대상자가 명장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차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유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추천 서류 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관련기관에서 받고 있으므로 접수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각 부문별 명장 신청자는 거주지 주소의 번지 및 통, 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가능한 규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장 추천 서류에 필요한 내용은 <명장 추천서> 구비서류인 <공적 조서> 및 <공적 요약서> 각 1부와 <경력증명서> 1부, 기타 서류로 <소속 사업체 기능인 직위(직급)제도 현황>,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 <품질 향상 및 공정 개선 실적>, <프로필 작성조서>, <모범사례> 등이 해당된다(표1 참조). 명장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각 서류 항목 당 정해진 배점에 따라 점수가

<표1> 명장부문 추천서 및 해당 첨부 서류

- 명장추천서 ■ 경력증명서(인사기록카드사본 첨부) ☆
- 공적조서 ■ 공적요약서 ■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실적 ☆
- 프로필 작성 조서 ■ 소속 사업체 기능인 직위(직급) 제도 현황
-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 또는 내용
- 사진 : 3매 (3.5cm×4.5cm)
- ※ '☆'는 서류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

매겨진다. 여기에 심사위원의 면접 점수가 합산되어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수점 한자리수까지의 점수를 계산하며 추천 후보자의 순위를 매겨 그해에 정한 명장 선정 대상 범위 내에서 명장을 결정한다. 명장 추천 후보자는 명장부문 추천서 및 해당 첨부 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 서류의 세부 작성법과 심사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과 명장 선정에 따른 공정 서류의 세부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명장추천서」의 경우 '명장신청 분야 및 직종'란은 직종 분류표를 보고 본인의 전문분야에 맞는 직종을 기재해야 한다. 제과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라고 쓰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취득 기재'란에는 취득

한 자격증 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원본 대조필하여 첨부해야 한다. 또한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란에는 입상 연도 또는 개최 회수, 기능경기대회명, 입상 직종, 입상 등위를 기재하고, 가능한 기능경기대회 상장 및 결과보고서 사본 또는 기능경기위원회에서 발급한 입상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근무처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영 제과점 업주는 인사기록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당시 영업장 건물 대표의 직인이 들어간 증빙서류나 사업자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 경력 증명을 해야 한다(표2 참조).

군복무 기간은 일반경력에 포함시키지 말고 '군경력'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일반 경력' 사항은 명장 선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허위로 기재하면 안된다. 또한 이직, 전직 등으로 인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각 직장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자영업자 또는 사업체의 해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경력이 인정된다. '경력 증명서'란은 인사부서에서 작성하고 작성자 본인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인사기록카드 사본'란은 인사부서 담당자의 원조대조필을 받아 경력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공적조서」는 '근무기간'을 작성할 때 서류 접수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무 년도까지 기재하면 된다. '공적요지'란은 한글로 90자 이내로 요약하되 구체적인 물량을 계산해 수치화 시키는 것이 작성 서류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공적사항'은 작성자 본인의 주관

적 입장이 아닌 시·도청 등의 추천관이 바라보는 입장처럼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주요공적 내용별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술식으로 객관성 있게 작성해야 하며, 매수에 제한은 없다(공적 조서 을지 사용). '주요학력 및 경력란'은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관을 확인하는 주요 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 포상기록'은 자신이 종사한 분야에서 행한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동일 공적 사항에서의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적요약서」의 경우 추천순위는 기재하지 말고, '연령'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접수개시일 현재의 나이를 만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경력'은 공적조서의 근무기간 기재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공적요약'은 90자 이내로 서술하되 간결하면서도 함축성 있는 내용으로 요약해야 한다.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실적」 작성에서는 '개선명'에 간략히 제목만 기재하면 된다. '근거'란에는 추천 후보자의 공정개선으로 인한 대내외 포상 및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페이지 수는 상관없으며 내용 요약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심사 기준 요소로서 작용한다. 일례로 ISO인증 실적, 기술 특허 등 객관적이고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된다.

여기서 공정 개선이란 제품을 만드는 과정상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거나 국가적인 비용 절감 등의 개선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개선 효과'란에는 개선으로 인한 공기단축, 예산절감, 공정개선, 품질개선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주요 내용'란에는 회사기여도 등 개선으로 인한 주요 내용을 100자 이내로 적어 내면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필작성 조서」는 명장 후보자 본인의 모든 공적을 압축해서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적'은 시·도 명만 기재하고 '연령'은

<표2> 경력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 증빙서류

(자료 협조: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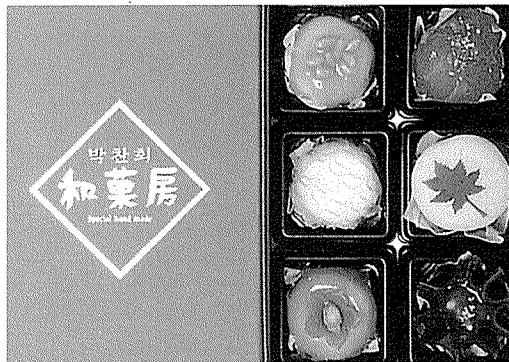
자영업자	사업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납세 증명서 •관할 시·읍·면 또는 동장의 사실 확인서 •기타 공공기관의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령 또는 관허·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의 확인서 •해산한 법인의 경우 재직당시의 이사 2인의 확인서(이 경우 법인해산 등기부 첨부)
<p>※ 자영 제과점에서 근무한 기술인은 위의 방법으로는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과거 자신이 근무한 제과점 종사자 또는 동일 분야에 함께 종사한 2인 이상인 연대보증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경력을 사실확인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입증인)을 세울 때는 본인의 경력을 증명할 입증인의 나이가 경력 개시일 당시 최소한 취업연령에 도달한 자이어야 한다.</p>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학력'은 최종학교를 기재하면 된다.

명장 선정 후보자 심사는 기능장려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장려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보안리에 구성되며, 보통 대학교수 및 관련업계 종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심사위원단은 명장 후보자의 제반 서류에 각각 점수를 매기며,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선정된 명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서류 심사가 뒤 따른다. 2차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위원단과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심사결과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근무 작업장 실사와 면접 심사가 이루어진다. 면접 심사는 주로 서류내용을 검토하는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작성한 서류 내용 일체에 대해서 문서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즉, 면접은 명장 추천 후보자가 20년 이상 개발한 실적 및 공정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 심사에서는 주요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항목은 기능인으로서의 투철한 장인정신을 묻는 정신관계, 직업에 대한 기능인으로서의 자세, 보유 기능과 관련한 사회 봉사 활동,



▲ 베이커리 업계 최초의 제과 명장인 박찬희씨의 화과자.



▲ (주)신리명과 임현양 부사장이 근무하는 제과 작업현장.

대내외적 수상경력, 업계 종사 경력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업계 종사 경력은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 연수 30년 이상인 자에게 최고 점수를 준다.

산업부문별 명장 현황

명장은 매년 30여 명이 선정되고 있으며, 명장들의 모임인 (사)대한민국명장회(www.masterhand.co.kr)를 설립해 한국명장전을 개최하는 등 기능인 스스로가 보유 기술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1986년에 현대중공업 용접공인 박동수씨가 선정된 이후 명장선정 대상업종이 작년 기준으로 167개로 늘어났고, 명장으로 선정된 기능인의 수도 308명으로 증가했다(표3 참조). 각 산업부문 가운데 기계조립, 기계설비, 기계제도 등의 기계업종에서 106명의 명장을 배출해 내 명장선정업종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금속 업종에서

34명의 명장이 배출되었고 조선항공에서 12명, 화공 및 요업에서 7명, 건축 8명 등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24개 부문 167개 업종에서 명장이 탄생돼왔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2000년 조리와 제과부문에서 첫 명장이 선정되었고, 작년에는 이용업에서도 명장이 탄생해 서비스 업종에서 명장 5명이 나왔다.

제과 기술인이 명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과 기능장' 자격을 갖추거나 '국제 기능 올림픽' 같은 대외적 규모의 행사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자격증'은 명장 선정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자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른 업종에 비해 '서비스 업종'의 명장 배출이 적은 이유는 서류 심사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명장 선정에서 항목당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공정개선 및 품질 향상 실적'을 서면상으로 입증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제과업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예를 들어 자신이 개발한 '화과자', '기능성 빵' 등의 제품이 있을 경우에 기술 개발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행한 공적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으면 명장 선정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 호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술인은 해마다 신상품을 출시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독특한 제품을 개발해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 제시면에서 유리하다.

명장은 대상자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술인'이라고 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술 개발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업계에서 인정해 주는 '최고'일지라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명장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명장제도에서 서류 심사과정에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소모되는 것도 그만큼 심사위원이 신중을 기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101**

<표3> 직종별 명장 선정 현황

(자료 협조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업종	배출인원	업종	배출인원	업종	배출인원
서비스(제과·조리·이용)	5	건축	8	광업지원(광산·화약취급)	3
기계	106	전기·전자	24	해양	2
금속	34	산업응용(신발류)	1	농림	2
조선·항공	12	환경(유독물 취급)	1	섬유	26
화공·요업	7	안전관리	7	공예	70

* 기간: 1986년~2001년 대상직종: 24개 부문 167업종

<표4> 서식 배부 및 접수 문의처

시도청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서울특별시 고용안정과 (02)3707-9373	서울경인본부 (02)3271-9228
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 (051)888-2381	인천 (032)818-218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과 (053)429-3214	경기 (031)253-1915
인천광역시 노사고용안정과 (032)440-2952	춘천 (033)255-4563

* 이밖의 지역은 기타 각 지역 시도청 및 공단 지역본부의 명장 서류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표5> 명장 추천 서류 접수 및 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지방사무소에서 명장 선정 후보자 추천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서류 일체를 추천기관(시·도)에 송부해야 함
- 추천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 후보자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추천의뢰하고 추천서류 일체를 송부해야 함
- 후보자 서류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후보자 추천시 필수요건 미달자 또는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실적 등 중요서류 미제출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는 가급적 규정서식을 사용토록 권유
-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하고 소속기관 인사부서 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